

兒童의 內·外統制信念이 抱負水準에 미치는 影響

全 耕 美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3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目 次

I. 序 論	III. 研究方法
II. 理論的 背景	IV. 結果 및 論議
1. 內·外統制信念	V. 結論 및 提言
2. 抱負水準	參考文獻
3. 研究假說	Abstract

I. 序 論

人間의 行動은 個人의 특성과 환경적 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個人의 特性 가운데서도 性格特性은 人間의 行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行動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性格에 관한 理論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들 理論 가운데 性格特性을 “行動과 強化間의 因果的 關係에 대한 個人의 知覺의 差異”에 따라 內的 統制와 外的 統制로 구분한 Rotter(1954)의 理論이 최근 여러 연구에서 檢證되어 왔다.

Rotter는 社會學習理論(Social Learning Theory)에 근거하여, 個人이 갖는 強化에 대한 기대가 人間의 行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²⁰ 內·外統制信念(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이란 이러한 強化에 대한 기대변인(expectancy variable) 중의 하나로서, 여러 先行研究들에서도 統制信念이 人間의 行動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變因임을 보여주고 있

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統制信念에 의해 영향받는 여러 行動特性 가운데서도 특히 抱負水準은 여러 상황에서 成就要因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行動特性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統制信念이 抱負水準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 兒童의 統制信念이 抱負水準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統制信念, 抱負水準, 學業成績, 性別 相互間의 關係를 밝히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內·外統制信念

內·外統制信念에 관하여 Rotter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個人이 어떤 強化를 자신의 行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다른 힘의 統制下에 있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거나, 행운(luck), 우연(chance), 운명(fate)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 이러한 信念을 外的 統制信念이라고 부르며 個人이 어떤 強化를 자신의 行動이나 비교적 고정적인 자신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 이러한 信念을 內的 統制信念이라고 부른다.”²¹⁾

지금까지 발표된 統制信念과 그 關聯變因에 관한 先行研究들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成就動機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統制信念이 다른 어떤 要因보다도 더욱 강하게 成就와 관련이 있으며,¹⁵⁾ 成就動機가 높을수록 內的 統制的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¹⁶⁾

成就欲求 혹은 學業成績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학생일수록 成就欲求가 강하고 學業成績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0, 15, 16, 17, 18)}

이밖에도 意思決定狀況에서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사람은 좀더 신중하고 判斷의 信念이 강한 만큼 일관성이 있고, 外的 統制信念을 지닌 사람은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5, 11)}

또한 性別에 관한 연구에서 統制信念에 있어서 性別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¹²⁾

2. 抱負水準

人間은 대상이나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行動에 대해서도 予想이 발달한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관한 予想의 상태를 抱負水準이라고 하는데, 抱負水準에 관해서 Frank는 “성적이 변화하는 어떤 과제에 있어서 자신의 過去成績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때 다음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표명된 抱負의 水準”이라고 定義하였다.²⁾

이와같은 抱負水準은 成敗의 經驗, 자기 능력에 대한 자각의 정도, 個人의 성격을 비롯한 많은 內·外的 條件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內的 條件으로는 지능, 性, 연령, 성격 등을 들 수 있으며, 外的 條件으로는 과제의 종류, 장면의 사태, 지시 방법, 文化·社會的 評價 등을 들 수 있다.^{3, 4)}

Frank는 자신감, 자존심, 야심, 주관성 등이

높은 抱負水準과 正的 相関이 있으며 자기 방어, 실패에 대한 불안등이 낮은 抱負水準과 正 相상관이 있다고 하였다.²⁾

3. 研究假說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先行研究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研究假說을 설정하였다.

- (1)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抱負水準이 높을 것이다.
- (2)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兒童일수록 抱負水準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變動이 적고 일관성이 있어 안정적일 것이다.
- (3)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兒童일수록 學業 성적에 높을 것이다.
- (4) 抱負水準이 높은 아동일수록 學業 성적에 높을 것이다.
- (5) 아동의 內·外統制信念에 있어서 性別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 (6) 兒童의 抱負水準에 있어서 性別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兒童의 統制信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Nowicki와 Strickland가 1973년에 제작한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을 번안하고 10개의 문항을 추가한 총 50개 문항중에서 문항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7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17개 문항의 문항 반응율은 27.7%~77.6%이고 문항 변별도; $C > .25$ 이며, 검사 신뢰도; $\alpha = 0.66484$ 이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를 가지고 서울시내 소재 G國民學校 5학년 남자 448명과 여자 405명 등 총 853명을 대상으로 內·外統制信念을 조사하고, 검사의 개인별 총점의 분포를 내어 남녀별로 양극단에서 30명씩 취해서 남자의 內·外的 統制集團과 여자의 內·外的 統制集團 등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총 120명을 대상으로 抱負水準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實驗節次

抱負水準을 측정하기 위한 實驗으로서 『양동이에 팔주머니 넣기』를 하였으며, 予備實驗을 통해 양동이의와 被驗者의 거리를 男兒는 2.5m로, 女兒는 2m로 결정하였으며, 양동이는 높이 30cm인 의자위에 올려놓고 被驗者는 선 자세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實驗節次는 연습시행 때에 팔주머니 10개를 던져 그 중 몇개가 양동이에 들어 갔는가를 확인하여 성적을 기록하고, 그 성적을 被驗者가 알게 한 후에 다음에는 “10개 중 몇개나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피험자에게 물어 다음의 성적을 예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方法을 연습 1회 본시행 5회 등 총 6회를 반복하였다.

실험의 실시 일자는 1982년 9월 9일 이었고 1인당 소요 시간은 약 7분~10분 정도였다.

3. 資料分析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抱負水準은 그 결과의 표시를 總施行의 平均을 취해서 目標差(goal discrepancy score), 成就差(attainment discrepancy score), 變動值(shift value) 등으로 나타냈다. 이 때 目標差란 앞의 성적과 다음의 예상 수준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成就差란 앞의 예상 수준과 다음의 성적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變動值란 성적의 변동에 대한 예상 수준의 변동의 비를 말하는 것이다.

아동의 학업 성적은 1982년도 1학기 평균 성적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二元變量分析(two-way analysis of variance)과 t檢證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밖에 積率相關係數(Pearson r)를 산출하였다.

4. 研究의 制限点

첫째, 抱負水準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 의 성

격이 운동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였으므로 이와 같은 實驗狀況에서는 운동 능력의 차이가 抱負水準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운동 능력의 差異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한정된 지역에서 표집된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고 사례 수가 충분치 못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에게 一般化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V. 結果 및 論議

1. 內·外統制信念과 抱負水準의 관계 및 抱負水準에 있어서 性別의 차이

표 1. 內·외통제집단별, 남녀별 목표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내적통제	외적통제	전 체
남	N	30	30	60
	M	1.033	0.72	0.876
	S D	0.882	0.72	0.82
여	N	30	30	60
	M	0.493	0.06	0.276
	S D	1.061	0.677	0.916
전 체	N	60	60	120
	M	0.763	0.39	0.576
	S D	1.012	0.773	0.92

표 2. 목표치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변량추정치	F
내외통제신념(A)	4.181	1	4.181	5.605*
성 별(B)	10.8	1	10.8	14.478**
A X B	0.108	1	0.108	0.144
집단내(오차)	86.525	116	0.745	
전 체	101.614	119		

*P < .05, **P < .01

표 1, 표 2와 같이 내적 통제 집단 아동들의

目標差가 외적 통제 집단 아동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0.763 : 0.39), 이것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抱負水準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先行研究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成就動機가 강하므로 실패에 그다지 영향받지 않고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하려는 성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10, 12, 14}

또한 남자 아동들의 목표차가 여자 아동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0.876 : 0.276), 이것 또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남자 아동들의 抱負水準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E. B. Hurlock이 주장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나 선생님 또는 그들이 속한 동년배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그들의 능력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目標들을 설정하도록 충동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높은 抱負水準을 설정하게 되는데,¹¹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아동보다 남자 아동에게 더욱 많은 충동이 가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目標差에 영향을 미치는 內·外統制信念과 性別의 相互作用效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內·외통제집단별, 남녀별 성취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내적통제	외적통제	전 체
남	N	30	30	60
	M	- 0.866	- 0.433	- 0.65
	S D	0.9	0.706	0.837
여	N	30	30	60
	M	- 0.22	0.193	- 0.013
	S D	1.118	0.85	1.015
전 체	N	60	60	120
	M	- 0.543	- 0.12	- 0.331
	S D	1.065	0.842	0.983

표 4. 성취자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변량추정치	F
내외통제신념(A)	5.376	1	5.376	6.326*
성 별(B)	12.16	1	12.16	14.12**
A × B	0.033	1	0.003	0.003
집단내(오차)	98.58	116	0.849	
전 체	116.119	119		

* $P < .05$, ** $P < .01$

표 3, 표 4와 같이 內的 統制集團 兒童들의 成就差가 外的 統制集團 兒童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0.543 : -0.12), 이것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내적 통제 신념을 지닌 아동일수록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실패들을 대담히 알게 생각하고 실패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 실패를 잊으려 하며,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는 높은 수준의 成功을 하려는 成就欲求가 강하므로,^{6, 9, 10, 15}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에 비해 높은 目標를 세우므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外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실패의 경험에 집착하고 실패를 과장함으로써 당혹감과 초라한 자기 평가의 고통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되며, 높은 수준의 성공을 하려는 成就欲求보다는 실패에 대한 不安이 더욱 강하므로,^{10, 15} 실패를 회피하기 위하여 目標를 낮추므로써 成功의 기회를 높이기 때문에 실패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자 아동들의 成就差가 여자 아동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0.65 : -0.013), 이것 또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남자 아동들이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 아동들의 포부 수준이 여자 아동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成就差에 영향을 미치는 內·外統制

信念과 性別의 相互作用效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內·외統제집단별, 남·녀별 변동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내적통제	외적통제	전 체
남	N	30	30	60
	M	0.823	0.924	0.873
	S D	0.605	0.582	0.596
여	N	30	30	60
	M	0.74	1.167	0.954
	S D	0.62	0.76	0.726
전 체	N	60	60	120
	M	0.781	1.046	0.914
	S D	0.614	0.688	0.665

표 6. 변동치의 변량분석 결과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변량추정치	F
내외통제신념(A)	2.096	1	2.096	4.854*
성 별(B)	0.193	1	0.193	0.448
A X B	0.793	1	0.793	1.838
집단내(오차)	50.083	116	0.431	
전 체	53.162	119		

*P < .05

표 5, 표 6과 같이 內的 統制集團 兒童들의 變動値가 外的 統制集團 兒童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0.781 : 1.046), 이것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兒童일수록 抱負水準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變動이 적고 일관성이 있어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은 判斷의 信念이 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신감을 갖고 있으므로 성파의 경험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外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⁵⁾ 성적의 변동에 따라 자주 목표를 변화

시키며 그 폭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變動値에 있어서 男·女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抱負水準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인가 하는 것은 性別의 差異와는 관계없이 個人的 性格特性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變動値에 영향을 미치는 內·外統制信念과 性別의 相互作用效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個人的 統制信念이 行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이와는 반대로 상황에 따라, 자신의 成就水準에 따라 각기 다르게 內的 또는 外的 統制信念을 갖게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7,8,10)} 人間的 統制信念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된다고 보다는, 과거 여러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련의 발달 과정을 거치며 이렇게 발달된 統制信念은 여러 상황에서 人間的 行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본 연구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內·外統制信念과 學業成績의 關係

표 7. 內·외統제집단별, 남·녀별 학업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내적통제	외적통제	전 체
남	N	30	30	60
	M	85.266	74.566	79.916
	S D	9.919	14.534	13.544
여	N	30	30	60
	M	85.4	71.733	78.566
	S D	10.193	16.217	15.17
전 체	N	60	60	120
	M	85.333	73.15	79.241
	S D	10.057	15.463	14.396

표 7, 표 8과 같이 內的 統制集團 兒童들의 學業成績이 外的 統制集團 兒童들보다 더 높게

표 8. 학업성적의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내외통제신념(A)	4453	1	4453	25.45**
성별(B)	54.675	1	54.675	0.312
A X B	66.008	1	66.008	0.377
집단내(오차)	20296.3	116	174.968	
전체	24869.991	119		

**P < .01

나타났으며 (85 : 73), 이것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0, 15, 16, 17, 18}

그러나, 男女兒童間에 學業成績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學業成績에 영향을 미치는 內·外統制信念과 性別의 相互作用效果도 나타나지 않았다.

3. 抱負水準과 學業成績의 關係

표 9. 남녀별 抱負水準과 학업성적의 상관계수(r)

		포부수준		
		목표차	성취차	변동치
남	N	60	60	60
	r	- 0.053	- 0.025	- 0.202
여	N	60	60	60
	r	0.119	- 0.183	- 0.343**
전체	N	120	120	120
	r	0.055	- 0.125	- 0.285**

**P < .01

표 9와 같이 여자 아동들의 경우에만 變動値와 學業成績間에 $P < .01$ 수준에서 負의 相關이 나타났으며, 男女 모두에서 目標差와 學業成績 成就差와 學業成績間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抱負水準의 높이와 學業成績間에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다른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포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실험 상황이 學業成就狀況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4. 內·外統制信念에 있어서 性別의 差異

표 10. 남녀별 內·외통제신념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M	SD
남	448	8.189	3.413
여	405	8.118	3.264
전체	853	8.155	3.343

표 10에 나타난 남녀간 內·外統制信念 점수의 평균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 內·外統制信念에 있어서 性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¹¹

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에서 설정한 假說中, 假說 1, 2, 3, 5가 긍정되었고, 假說 6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으며, 假說 4는 否定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抱負水準이 높다.

(2)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抱負水準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변동이 적고 일관성이 있어 안정적이다.

(3) 內的 統制信念을 지닌 아동일수록 學業成績이 높다.

(4) 抱負水準이 높은 아동과 抱負水準이 낮은 아동간에 學業成績의 차이는 없다.

(5) 아동의 內·外統制信念에 있어서 性別의 차이는 없다.

(6) 아동의 抱負水準에 있어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抱負水準이 더 높고, 더욱 많은 실패를 경험하나, 抱負水準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性別의 차이가 없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비추어 學業成就狀況에서의 抱負水準과 學業成績과의 관계 연구 및 抱負水準에서 나타난 남녀차의 원인을 규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인간의 統

制信念은 학습될 수 있으며, 타고난 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조성에 더욱 영향 받는다⁹⁾ 는 사실을 주시하여 統制信念의 발달을 이끄는 先行狀況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参 考 文 献

1. 정은주, 손진훈, “학생용 내·외통제척도 제작연구”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1981. 1.
2. 山下俊郎, 松山義則, 高野清純, 宮校美沙子, 原野広太郎, 高木俊一郎, 情緒·欲求·動機, 東京, 昭和54年
3. Bialer, I., “Conceptualization of Success and Failure in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1961, 29, 303~320.
4. Breckenridge, M. E., & Vincent, E. C., *Child Development*; 4th ed. Philadelphia; Saunders W. B Company, 1955.
5. Crowne, D. P., & Liverant, S., “Conformity under varying Conditions of Personal Commit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3, 66, 547~555.
6. Efran, J. S., “Some Personality Determinants of Memory for Success and Fail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63.
7. Elkind & Weiner,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1978.
8. Gruen, G. E., Korte, J. R., & Baum, J. F., “Group Measure of Locus of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1974, 10, 683~686.
9.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 Y.; McGraw Hill Co., 1956.
10. Joe, V. C., “Review of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Construct as a Personality Variable,” *Psychological Reports*, 1971, 28, 619~640.
11. Kahl, J. A.,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 of Common Maris Boys,” *Harv. Educ. Rev.*, 1963, 23, 186~208.
12. Lefcourt, H. M.,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Locus of Control,”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6, 1~39
13. Liverant, S., & Scodel, A.,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as Determinants of Decision making under Conditions of Risk,” *Psychological Reports*, 1960, 7, 59~67.
14. Messer, S. B., “The Relation of Internal-External Control to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1972, 43, 1456~1462.
- Nowicki, S., & Strickland, B. R.,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3, 40, 148~154.
16. Nowicki S., & Duke, M. P., “A Preschool and Primary Internal External Control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1974, 10, 6, 874~880.
17. Nowicki, S., & Duke M. P.,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Noncollege as well a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74, 38, 136~137.
18. Nowicki, S., & Walker, C., “The Role of Generalized and Specific Expectancies in Determining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74, 94, 275~280.
19. Roger Content Loeb., “Concomitants of Boy’s Locus of Control Examined in Parent-Child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975, 11, 3, 353~358.

20. Rotter, J. B.,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54.
21. Rotter, J. 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1966, 80, 1 (Whole No. 609), 1~28.

Abstract

The Effects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Level of Aspiration in Korean Children

Joan, Kyoung Mi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level of aspiration in Korean Children. The locus of control was measured by means of the Nowicki & Strickland's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1973)." The level of aspiration was measured by "Throw Balls into the Basket Game" Sixty internal controlled children(30 girls and 30 boys) and 60 external controlled children(30 girls and 30 boys) were selected among 853 children in fifth grade. For the data analysis,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d t-test were applie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ompu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Goal discrepancy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ternal controlled children than in the external controlled children.
2. Shift valu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ternal controlled children than in the internal controlled children.
3. School achieve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ternal controlled children than in the external controlled children.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hool achievement between the children who showed high goal discrepancy score and the children who showed low one.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ocus of control between girls and boys.
6. Goal discrepancy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boys than in girl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hift value between girls and boys.